

축산계열화사업 현주소와 발전방향



김종구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계열화사업 현주소

관련 산업 매년 급성장

우리나라 가금산업은 부업규모의 수준에서 '60~'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미국에서 종축과 사료가 도입되면서 기업화 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14년 닭·계란·오리 생산액은 4조 8821억 원으로 축산업 전체 18조 7754억 원의 26.0%를 점유하고 있고, 사육마리수 증가와 함께 생산·도계·가공·유통 등 가금산업 전반의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어 관련 산업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물량 또한 삼계탕 등 가공육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의 백색육 선호 추세에 따라 국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전체적인 소비량은 적은 편으로 가금산물 프로모션 성공여부에 따라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계산업은 계열화사업 등의 강력한 육성정책으로 다른 축종에 비해 전업화·기업화가 진전되어 1,400여 농가 중 3만수 이상 전업농이 70%에 육박하고, 이들이 전체 사육마리수의 88.4%를 차지하는 등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반자적 입장 상생을

계열화사업은 전문경영체가 생산·가공·판매를 일관 관리하고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우리나라 축산발전의 한축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가금(육계, 오리)은 소·돼지 등 타 축종에 비해 사육기간(육계 32일, 오리 42일)이 짧고 자급회전이 빠른 특성 등으로 계열화가 진전되어 '14년도 기준으로 계열화비율이 육계는 91.2%, 오리는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을 통해 농가는 거래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아 가족 사육에만 전념하고 계열사는 별도의 사육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등 시설 투자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축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료, 사육자재 등의 대량구매를 통해 원가 절감이 가능함에 따라 생산비를 절감하고 계열사 소속 수의사의 체계적인 농장·가축 관리를 통해 가축질병을 예방하여 사육 안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산계열화사업이 생산비 절감과 생산물 판로 확보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크나, 계열농가와 계열사업자간의 갈등이 상존해있는 상황입니다.

병아리 품질저하, 사료품질 불균일 등 공급자재에 대한 불신 및 사육경비·평가방식에 대한 계열농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계열사 간 시장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영세 계열사 부도 발생에 따른 사육수수료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과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농가와 계열사 간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계열화사업의 가장 큰 과제이며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발전방향

정부에서는 계열화사업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축산계열화사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

농가,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계열농가와 계열사 간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사용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강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불공정 거래 신고에 따른 자체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연간 2회에 걸쳐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계약서, 사육경비 지급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공받아 자료 조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범사업자 육성 확대

계열농가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농가협의회 구성·운영이 활성화된 계열사업자에 대해 모범사업자로 선정하여 저리(0~1%)의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등 모범사업자 선정을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4년부터 모범사업자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자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범사업자 육성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모범사업자로서 기본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모범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인센티브 등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모범사업자 선정·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육경비 지연지급 등 계열농가 보호방안 추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사육경비를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지급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의 농가협의회에 통지하여 농가협의회에서 대응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에서는 가축사육경비 지연지급 등에 대해 신고접수·조사하고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하여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조치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육경비 미지급 시 사육중인 가축의 처분 권한을 농가협의회에 위임토록 하여 사육경비를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계열사는 명칭에 관계없이 불문하고 사육농가에서 구성한 농가대표단에게 가축의 처분권한을 위임토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도모

농가협의회는 규모가 큰 계열사 위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농가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은 계열사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을 통해 농가협의회 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열사별로 계약농가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시 계열화사업자가 농가협회에 대한 부당압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계열화사업자별 농가협회 구성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미구성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농가협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농가협회 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운영실태·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급안정화 추진

사육주기가 짧은 가금류(육계, 오리)는 생산량 증감에 따라 가격변동 폭이 커 수급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가금류의 생산량 증가는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요인 등으로 소비량이 감소할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수급불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상황 해결을 위해 민간 중심의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자율감축, 입식자제, 냉동비축 등 추진으로 선제적으로 수급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수출 및 소비확대 추진

닭고기나 계란 소비량은 미국,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할 경우 아직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우리 가금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업체 마케팅 및 시설지원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가금(육계)산업은 닭고기 시장 전면개방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열화 비율이 90%에 이르고, 3만수 이상 전업농 사육비중도 90%에 육박하는 등 다른 축종보다 기업화·전업화됨으로써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관련농가(업체)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닭고기·계란 등 가격하락으로 가금산업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열화사업의 주축인 계열농가·계열화사업자가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사육마리수를 감축하고,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극복하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축산경제신문 [2015. 12. 11] [2015. 12. 18]